

플리토 (300080) 탐방노트

●
Mid-small cap
 Analyst **윤주호**
 02. 6454-4876
 juho.yoon@meritz.co.kr

 RA **이창석**
 02. 6454-4889
 changseok.lee@meritz.co.kr

■ 기본사항

- '12년 설립, 국내 유일한 언어전문 빅데이터 기업, '19년 코스닥 BM(Business Model) 상장 1호 기업
- 플리토 누적 언어데이터 생산량 1.2억개, 플랫폼 누적가입자수 1,030만명, 173개국, 25개 언어 데이터 생산 및 수집
- 국가별 언어데이터 보유량 비중: 아시아어 67%, 유럽어 13.9%, 아랍어 9.5%, 영어 9.4%
- 매출비중(1H19) : 데이터판매 76%, 플랫폼 매출 24%

■ 주요제품군 및 사업분야

- **언어 빅데이터 전문기업**: 플랫폼 언어유저로부터 언어데이터 생산 및 공급, 고품질 언어데이터를 분류,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어수요자인 플랫폼 일반유저(B2C)와 기업고객(B2B)에 제공. B2B고객에 데이터 판매시 초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 이후 발생한 매출은 원가 없이 이익으로만 인식함.
- **B2C 플랫폼 플리토(Flitto) 보유**: 언어데이터 요청, 보상설정, 생산 플랫폼구축. 인공지능으로 자동답변이 불가시 번역 전문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 초기 데이터 생성 이후 다양한 참여자 검증
- Peergroup: 인공지능 언어개발 업체 Appen(호주)이 있음. 인공지능 학습시키기 위해 전문가 중심 데이터 생성. 트위터 등 SNS와 미디어를 번역해서 데이터화. 주로 미국, 호주 등 영미권 위주 매출이 대부분인데 반해 플리토는 아시아지역이 대부분. 각 국가에서 언어데이터 생성기업들은 있으나 10개국 이상커버리지가 넓은 기업은 없음

■ 투자포인트 (Investment Points)

-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언어데이터 취급**: 음성데이터와 번역 데이터는 어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데이터 생성이 용이, 다른 인공지능 산업보다 데이터 축적이 빠른 장점 보유.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으로 코딩만 있으면 쉽게 구현 가능하나 산업 적용, 특허 등이 어려운 아직은 산업초기 단계.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와 데이터를 누구에게 판매하는가임
- **언어 데이터관련 토탈솔루션 보유**: 플랫폼(Flitto)을 통해 다양한 유저가 데이터 생산, 언어데이터 수집, 검수를 통한 데이터 생성 및 검증, 플랫폼 유저의 집단지성을 통해 3~8회 검수 진행. 플리토 플랫폼 유저 추이는 '14년 219만명, '19.3월 1,033만명으로 증가 중. 관련데이터의 저작권은 플리토에 귀속. 플랫폼을 이용하는 번역수요자들은 자동번역기보다 정확하고 전문가번역보다는 값싼 번역을 원하는 이들임
- **경쟁사 Appen과는 다른 비즈니스 구조**: Appen은 직접 전문가를 채용하여 언어데이터를 쌓는데 비해 'Flitto'라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는 구조. 업종의 특성상 추가적인 인력확장에 대한 부담 크지 않아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발생 가능
- **음성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 증가에 따른 B2B 매출 증가**: 자동차, AI스피커,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요식업 등 언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에 판매 가능. 국내고객 뿐만 아니라 국내 음성인식이 필요한 해외 기업으로 확대. '17년 이후부터 글로벌 고객사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B2B 매출 증가 중 ('16년까지 관련 매출 전무)
- **다양한 매체 등에 적용 가능성**: 백종원의 요리비책, 윤종신의 탈각기 등 유명 유튜버 및 CJ ENM 영상 자막 번역 경험. 1개 언어기준 분당 1.5만원, 10분 15만원 수준의 가격을 1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번역 진행
- **연간매출의 대부분이 4Q 발생하는 계절성**: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데이터매출은 B2B향으로 대부분이 4Q에 수익인식. 수익인식구조는 고객사별 변동 있으며 데이터 매출의 수익

■ 실적, 재무 및 valuation

- 매출액 추이: '16년 13억원, '17년 22억원, '18년 35억원, '19E 66억원, '20년E 136억원 (예상치는 가이드نس)
- 기존 인력 대비 최근 70% 인력 증가로 인한 고정비 증가로 '19E bep 수준의 실적 예상
- 오버행(overhang): DSC인베스트먼트 3.28%로 exit 중 단기물량부담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